

중년 기혼남녀의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최인선**·배희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중년 기혼남녀의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역의 중년 기혼남녀 51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단절 및 거절의 도식 척도, 부부친밀감 척도, 자기수용 척도, 정서인식명확성 척도를 사용하여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주요 변인들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은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수용은 부부친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인식명확성이 자기수용을 거쳐 순차적으로 부부친밀감에 이르는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

* 본 연구는 한국가족학회 2019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으로, 최인선(2019)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최인선(주저자)은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주 관심분야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이다. E-mail: flag7000@hanmail.net

*** 배희분(교신저자)은 상명대학교 교수이며, 주 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 상담, 부모교육,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이다. E-mail: heeboon@sm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며, 많은 이들이 '결혼과 가족'이라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제도 안에서 살아간다(정현숙, 유계숙, 2001). 또한 오늘날에는 신약개발이나 유전정보를 통한 진단 등의 현대 의학의 진보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긴 수명을 살게 되었는데, 통계청(2018)에 의하면 한국남성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성은 85.7년이고, 영국 의학전문지 란셋이 제시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5개국 기대수명 조사에서는 대상국 남녀 중 2030년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82세로 유일하게 90세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았다(경향신문, 2017. 2). 연장된 인간의 수명으로 인해 생의 후반에 해당했던 중년기는 이제 인생의 한 가운데 시기로 삶의 허리에 해당하는 단계가 되었고 노년기는 이 중년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중년기의 명확한 나이의 구분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Levinson(1978)은 인생주기를 대략 25년씩 나누어 아동기와 청소년기(0~22세), 성인전기(17~45세), 성인중기(40~65세), 성인후기(60세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Glick 등(2000)에 의하면, 대체로 40~60세의 시기를 말한다. 인간발달을 8단계로 나눈 Erikson은 이러한 중년기에 자신의 관심과 목표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Jung도 성인 중년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성인기에 안정과 전환의 기간을 교대로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Levinson은 중년의 혼란은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데 필요한 갈등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신명희 외 2013). 이렇듯 중년기는 인생의 중반에 맞는 변화의 시기로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때이기도 하고 이로 인한 위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년기 인구의 커다란 축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 되면서 '황혼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이혼 건수는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10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고 3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은 10년 전(6100건)보다 90% 증가했으며 매해 결혼 관련 통계청의 수치는 전체 결혼의 1/3이 이혼으로 종결되며 그중 40대 이상의 이혼이 40%를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혼의 사유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으나 성격차이, 가족불화, 배우자 부정의 이유가 상위 대부분

을 차지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부부 상호작용 안에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정서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부의 정서관계는 부부 친밀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부부 친밀감은 건강한 부부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로서(이경희, 1998), 결혼 만족과 유지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일컬어진다(이희숙, 2008; Gottman & Levenson, 2000). 또한 이러한 중년의 삶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개인의 심리도식에 따라 부부 사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강지영(2017)은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신 및 상대방의 심리도식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재구축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김시연과 서영석(2008)은 부적응도식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내용에서 개인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도식의 개선이 관계적응의 핵심요인이며 이것은 친밀감의 문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교영과 신희천(2007)은 부부관계의 증진과 이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초기에 맺어진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부관계의 패턴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상대방의 어린 시절의 '단절과 거절과 관련이 있는 도식'을 지각하고 함께 다루는 것이 우선과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도식 이해의 과정에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이 수반되며(김영자, 2016), 정서인식 과정 중의 하나인 정서인식명확성은 타인과 나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이 자기의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Mayer와 Stevens(1994)은 정서경험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서의 인식이며 이것은 또한 가장 중요한 정서 처리과정 요소라고 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수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영혜(2003)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이해와 정리를 통해 수용이 일어난다고 보았고 박경(2013) 또한 정서인식을 명확하게 할수록 심리적 수용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 친밀감, 정서인식명확성, 자기수용은, 부부관계와 대인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여겨져 앞의 선행연구들 외에도 이들 변인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으나, 하나 혹은 두 변인들에 대한 분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서적 변수와 인지적 변수가 함께 결합된 입체적 형태로 보고자 한 노력은 그 동안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과거 어린 시절 형성된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정서적, 인지적 요소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하나의 모형 안에서 탐구해 보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의 매개보다는 두 변인

의 이중매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세분화 된 가족치료, 부부상담 등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나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 개인의 정서인식능력 확인과 개발, 상대의 정서 기반이 되는 심리도식으로 접근하는 깊은 통찰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이해의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도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조, 뼈대, 윤곽을 뜻한다. 도식은 Piaget가 인지와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개념인데, 인지 행동 심리학에서의 도식은 현실이나 경험에 부여된 어떠한 패턴이며 개인이 경험과 현실을 설명하는 것을 돕고 지각을 매개하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권석만, 2005). Beck(1967)은 ‘인지도식(cognitive schema)’이라는 용어를 개념화 하였는데, 개인은 모두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외부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구조로서의 각자의 도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도식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외부 현실에 대한 정보처리 경로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또한 이러한 왜곡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Beck의 영향 아래 심리도식치료를 개발한 Young(1990)은 생애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개인에게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키는 역기능적 도식들의 집합으로써 ‘초기부적응도식’을 개념을 제안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은 유해한 아동기 경험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발달하며, 전 생애를 통해 정교화 된 자신 및 타인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하고 만연한 주제 또는 패턴, 기억, 감정, 인지, 신체감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자기-패배적인 패턴으로 정의된다(Young et al, 2003). 대부분의 초기부적응도식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주한 유해한 경험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시작되며, 아동기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발달하고 이러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경험들의 영향이 누적되어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도식은 아동기 때 겪었던 외상적 경험과 비슷하다고 지각되는 생활 사건들에 의해 활성화되며, 각 도식들이 활성화 되면 분노나 우울, 수치심 혹은 공포 등의 강한 부정적 감정을 다시

경험한다. 또 대부분의 초기부적응도식은 환경과 자신과의 관련된 맥락에서 무조건적인 신념 및 감정들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절대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므로 변화에 대해 대단히 저항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인지적 일관성에의 욕구 혹은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초기부적응도식을 자극하는 사건들에 쉽게 끌리고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기 경험의 유해함을 다시 반복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Young et al, 2003). 현재까지 18개의 초기부적응도식이 밝혀졌으며, 5개 심리도식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의 기준은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 정서욕구이다. 5개 도식의 영역과 각 영역의 하위도식은 <표 1>과 같다.

<표 1> 심리도식 영역과 하위도식

심리도식 영역	하위도식(초기부적응도식)
단절 및 거절	불신·학대 / 정서적 결핍 / 유기·불안정 사회적 고립·소외 / 결함·수치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의존·무능감 / 실패 / 융합·미발달 자기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타인 중심성	복종 / 자기희생 / 승인·인정추구
과잉경계 및 억제	정서적 억제 / 엄격한 기준 부정적·비관주의 / 처벌
손상된 한계	용대성·특권의식 / 자기훈련·부족한 자기통제

Young 등(2003)에 의하면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을 가진 개인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안정적이거나 만족스러운 애착을 만들지 못하고 돌봄, 사랑, 안정감, 소속에 대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들의 대부분은 학대를 경험하는 등의 외상을 동반한 아동기를 보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러 자기-파괴적인 관계를 무모하게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와 반대로 아예 친밀한 관계를 회피해버리곤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초기부적응도식에 대한 연구 중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대인관계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단절하는 성향이 강하거나 냉담한 대인관계의 경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안하얀, 서영석, 2010; 조성호, 2001),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된 부적응도식은 회피적이고 불안한 차원의 애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구성희, 채규만, 2013).

2. 부부친밀감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하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서로 돌보아 주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는 등의 느낌은 일반적으로 대개의 사람들이 소망하며 경험하고 싶은 욕구이다. Sternberg(1986)에 의하면 친밀감은 사랑하는 대상의 복지를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행복을 경험하며,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를 존중한다. 또한 서로가 꼭 필요할 때에 의지할 수 있고 상대방과 자신의 소유를 공유하며 상대방을 위해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게하며,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부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Greenberg(2004)는 부부간 심리적 상호기제를 밝히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부간에 특히 필요로 하는 정서는 부부친밀감의 획득에 있음을 밝혀냈다(이경희, 1995: 재인용).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관계적 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명희, 최연실, 2007), 기혼 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에 대한 경험과 부부친밀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자녀돌봄 수준도 높았다(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부부친밀감과 단절 및 거절의 도식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적 결핍과 결함 및 수치심 도식이 높으면 친밀감은 낮아진다(Stiles, 2004).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긍정적인 사고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Freeman, 1998). 즉,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높으면 친밀해야 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Stiles, 2004). 한편 단절 및 거절도식이 부부친밀감과는 부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단절 및 거절도식이 자신이나 부인의 부부친밀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인의 경우는 자신의 부부친밀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지영, 2017).

3. 자기수용

Rogers(1961)는 개인에 대해 어떤 조건적 평가도 포함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할 때 그 대상에게 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긍정적이고 유용한 특성으로서의 개인의 자기수용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를 창시한 Ellis(1977)

는 무조건적 자기수용(unconditional self-acceptance)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자신이 지적으로, 올바르게, 유능하게 행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기 개념을 뜻한다(Ellis, 1977; Maccines, 2006). Epstein과 Feist(1988)의 연구에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타인수용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친밀감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서라고 할 때, 자기 수용은 부부친밀감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은 자신의 신체적인 상태와 감정 그리고, 사고에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표정이나 신체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자기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자기 내적감정을 정확하게 느끼며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을 파악, 평가,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winkles & Giuliano, 1995). 정서인식 과정의 하위 영역인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의 구체적인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 이해, 구분, 명명하는 능력을 의미하며(Gohm & Clore, 2000),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행동을 동기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인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은 대인관계문제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정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권진희, 김해란 2017). 정서인식 명확성이 떨어지는 개인들은 삶의 적응 수준이 낮으며 정신병리에서도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정서중심적인 대처양식을 보인다(안윤숙, 2009).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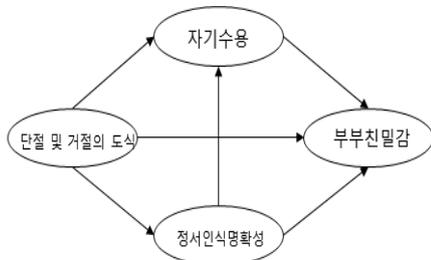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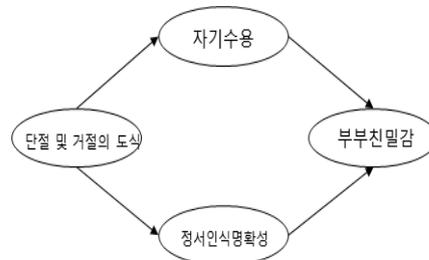
둘째,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 관계와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수용이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 사이에 이중 매개하는 모형[그림 1]로 설정하였으며 경쟁모형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수용이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에 단순 매개하는 모형[그림 2]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



[그림 2]

3.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역의 40세부터 59세의 중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제시하여, 총 514명의 설문응답을 완료하였고 기술상으로 정확한 기재가 아닌 응답을 제외 510명의 응답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250명(49%), 여성 260명(5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47세로 전체 대상연령 40세~59세 대비 젊은 연령대였으며 40~45세가 39.6%, 46~49세가 31.6%, 50~55세는 18.8%, 56세 이상이 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52.4%, 경기도 36.5%, 인천시 11.2%로 조사되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10)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50	(49.0)
	여자	260	(51.0)
연령	40~45세	202	(39.6)
	46~49세	161	(31.6)
	50~55세	96	(18.8)
	56세 이상	51	(10.0)
나이(평균±표준편차)		47.71	5.24
지역	경기도	186	(36.5)
	서울특별시	267	(52.4)
	인천광역시	57	(11.2)

4. 측정도구

1)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8)이 제작한, Young의 도식 단축형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 naire-Short Form: YSQ-SF)를 이미엘(2006)이 번안하여 사용한 단축형 질문지에서 단절과 거절의 영역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단절과 거절의 영역에는 유기 및 불안정, 불신 및 학대, 정서결핍, 결함 및 수치심, 사회 고립 및 소외 도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도식에 대한 5개의 문항으로,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 Likert척도로 평정(1: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2)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희(1998)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인지적, 성적, 정서적 친밀감의 세 하위 유형으로 5문항씩 총 15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평정(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하며 점수가 클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기수용

자기수용 척도는, Ellis의 이론 REBT를 토대로 Chamberlain과 Haaga(2001)이 개발, 2005년 김사라형선에 의해 번안되었으며 총 15문항의 7Likert척도로 (1: 전혀 아니다~7: 매우 그렇다)평정하였다. 점수의 합이 클수록 자기수용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의 측정을 위하여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 이훈구(1997)에 의해 번안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느낌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주의(5문항)와 정서 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 느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인식명확성(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을 사용하였고 역채점 문항은, 1, 2, 4, 7, 11번 문항이다. 각 문항은 5Likert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평정하였고 점수의 합이 클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인식명확성은 특질 상위-기분 척도(TMMS)의 하위척도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방사 알고리즘 방식으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여(Catell & Burdsal, 1975) 세 가지 하위요인(정서인식명확성1, 정서인식명확성2, 정서인식명확성3)의 측정변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정서인식명확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AMOS 23.0을 사용하여 다음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부친밀감에 대한 초기부적응도식,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의 측정모형의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넷째,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자료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 검토결과 왜도의 경우, -.486~.817, 첨도의 경우에는 -.561~-2.69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 수준 자료의 경우에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모형 적합지수를 얻을 수 있다는 Bandalos(2001)의 연구결과에 따라 원칙도에서의 하위요인 정서인식명확성을 정서인

식 1, 2, 3의 세 개의 측정변수로 묶어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 본 결과자료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 왜도와 첨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N=510)				
영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단절 및 거절의 도식 (1~6 Likert)	2.6710	.96799	.591	.026
정서학대	2.7286	1.20461	.431	-.561
불안정	2.6835	1.10608	.512	-.209
불신	2.9910	1.06761	.307	-.199
사회고립	2.5922	1.13633	.616	-.156
결함	2.3596	1.12734	.817	.032
부부친밀감 (1~5 Likert)	3.2604	.65791	-.290	.306
인지적	3.4725	.65826	-.486	.739
정서적	3.2686	.80201	-.436	.157
성적	3.04000	.823314	-.194	-.117
자기수용 (1~7 Likert)	4.1616	.60309	.007	2.691
존재	4.9176	.91327	-.450	1.371
판단분별	3.5781	.84871	.293	.806
피드백	4.0917	.81988	.348	1.345
정서인식명확성(1~5 Likert)	3.3904	.48020	-.125	1.179
정서인식1	3.5814	.64346	-.412	.793
정서인식2	3.3306	.69687	-.315	.162
정서인식3	2.9196	1.01434	-.008	-.604

* $P<.05$, ** $P<.01$, *** $P<.001$

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경우 $r=-.418$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p < .001$).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자기수용의 경우 $r = -.525$ 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p < .001$).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경우 $r = -.548$ 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부부친밀감과 자기수용의 경우 $r = .386$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부부친밀감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경우 $r = .36$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경우 $r = .454$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이러한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표

(N=510)

	정서 학대	불안정	불신	사회 고립	결함	단절 및 거절의 도식	인지적	정서적	성적	부부 친밀감	존재	판단 분별	피드백	자기 수용	정서 인식1	정서 인식2	정서 인식3	정서 인식	
정서학대	1																		
불안정	.611***	1																	
불신	.604***	.630***	1																
사회고립	.660***	.683***	.670***	1															
결함	.679***	.729***	.634***	.797***	1														
단절 및 거절 도식	.835***	.850***	.820***	.888***	.896***	1													
인지적	-.385***	-.294***	-.290***	-.352***	-.339***	-.388***	1												
정서적	-.441***	-.310***	-.354***	-.407***	-.379***	-.443***	.707***	1											
성적	-.285***	-.134***	-.218***	-.268***	-.203***	-.260***	.549***	.605***	1										
부부친밀감	-.427***	-.280***	-.332***	-.394***	-.352***	-.418***	.850***	.895***	.846***	1									
존재	-.389***	-.276***	-.233***	-.327***	-.393***	-.379***	.479***	.348***	.335***	.441***	1								
판단분별	-.122***	-.281***	-.251***	-.246***	-.268***	-.270***	.035	.159***	-.004	.074	.012	1							
피드백	-.415***	-.415***	-.362***	-.458***	-.497***	-.501***	.307***	.338***	.231***	.336***	.375***	.375***	1						
자기수용	-.416***	-.448***	-.390***	-.469***	-.529***	-.525***	.373***	.388***	.250***	.386***	.647***	.705***	.763***	1					
정서인식1	-.278***	-.293***	-.206***	-.310***	-.335***	-.332***	.283***	.156***	.165***	.227***	.443***	-.096	.243***	.258***	1				
정서인식2	-.501***	-.535***	-.419***	-.532***	-.614***	-.608***	.270***	.350***	.205***	.318***	.270***	.287***	.543***	.495***	.355***	1			
정서인식3	-.065	-.032	-.037	-.037	-.026	-.046	.158***	.086	.131***	.142***	.253***	-.003	.129***	.173***	.227***	.043	1		
정서인식	-.470***	-.485***	-.354***	-.485***	-.550***	-.548***	.345***	.306***	.232***	.336***	.448***	.103(°)	.470***	.454***	.786***	.802***	.356***	1	

* $P < .05$, ** $P < .01$, *** $P < .001$

2.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 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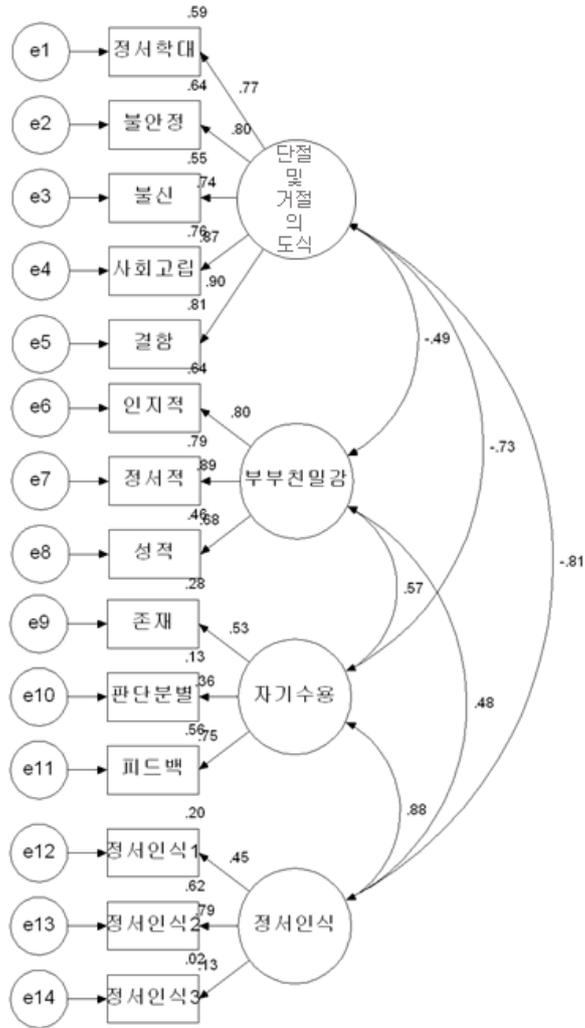
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X^2 값이 325.81($df=69$, $p<.001$)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인 CFI는 .930로, SRMR은 .073으로 RMSEA는 .086(90% 신뢰구간=.076~.095)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GFI	TLI	CFI	RMSEA	SRMR
325.81	69	.913	.908	.930	.086	.073 (.076~.095)

또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측정변인별 요인 부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의 측정변인들은 .74~.90, 부부친밀감은 .68~.81, 자기수용은 .32~.72, 정서인식명확성은 .47~.81로 나타나, 각 측정변인별 요인 부하량이 유의한 통계치를 나타냈다($p<.001$). [그림 3]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이다(* R .05, ** R .01, *** R .001).



[그림 3]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검증과정에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하여 자기수용의 하위요인인 존재와 판단분별의 오차 간의 상관을 허용하였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의 측정변수인 1과 2의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에서 표준화계수가 가장 높은 측정변인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집중타당성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일반적으로 0.5이상의 평균분산추출량이면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한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사용된 구성개념 간 평

균분산추출량은 <표 6>에서 같이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의 경우에는 .77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항목묶음을 한 관측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p < .001$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이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에 대한 변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 영역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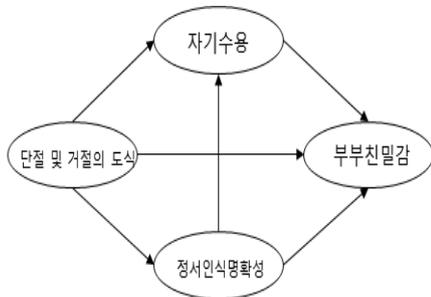
<표 6> 집중타당성 및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결합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902	1.000					
사회고립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873	.976	.035	28.224***			
불신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740	.777	.037	20.782***	0.504	0.889	.968
불안정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802	.873	.036	23.917***			
정서학대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768	.910	.041	22.124***			
성적 ← 부부친밀감	.676	1.000					
정서적 ← 부부친밀감	.887	1.279	.081	15.713***	0.585	0.906	.903
인지적 ← 부부친밀감	.803	.950	.062	15.356***			
피드백 ← 자기수용	.749	1.000					
판단분별 ← 자기수용	.357	.493	.070	7.015***	0.592	0.636	.751
존재 ← 자기수용	.525	.781	.077	10.084***			
정서인식3 ← 정서인식	.727	1.000					
정서인식2 ← 정서인식	.785	4.261	1.656	2.574***	0.580	0.777	.754
정서인식1 ← 정서인식	.450	2.253	.895	2.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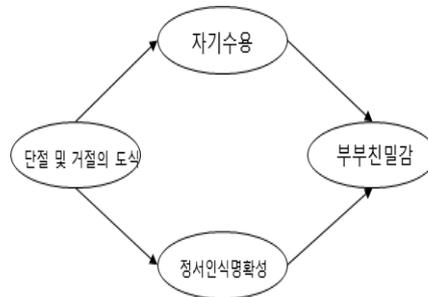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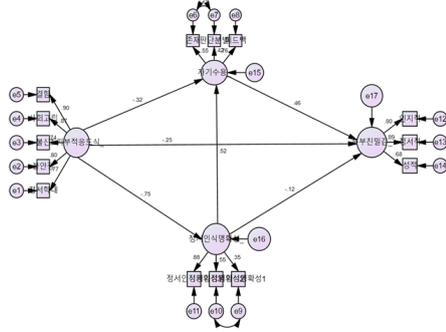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래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에는 구조방정식 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계수추정을 위하여 최대우도추정치 (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GFI, TLI,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08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판정하는데, <표 7>과 같이 두 모형 모두 GFI, TLI, CFI가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는 .08이하는 아니나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과 함께 적합도지수를 고려하였는데, χ^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 표본크기에 영향 없이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G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고, GFI, TLI, CFI의 경우 값이 .90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8 이하일 때를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1). 연구모형은, $\chi^2=325.81(df=69, p<.001)$, GFI= .931, CFI=.930, SRMR=.073, RMSEA=.086(90% CI=.076~.095)이며, 경쟁모형은 $\chi^2=325.29(df=71, p<.001)$, GFI= .903, CFI=.920, SRMR=.09, RMSEA=.090(90% CI=.081~.10)으로 두 모형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모형의 TLI가 근소하게 높아 더 좋은 연구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한 결측값 처리의 통계적 방법으로 AMOS에서 제공하는 FIML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설문지를 수거함에 있어 결측자료가 있으면 페이지가 이동하지 않게 설정되어 결측자료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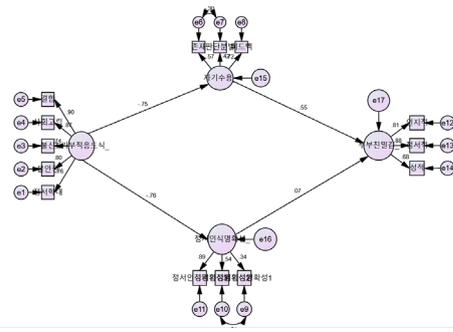
[그림 4] 연구 모형



[그림 5] 경쟁 모형



[그림 4-1]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그림 5-1] 경쟁모형 적합도 지수

〈표 7〉 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GFI	TLI	CFI	RMSEA	SRMR
연구모형	325.81	69	.931	.908	.930	.086	.073 (.076~.095)
경쟁모형	365.29	71	.903	.897	.920	.090	.09 (.08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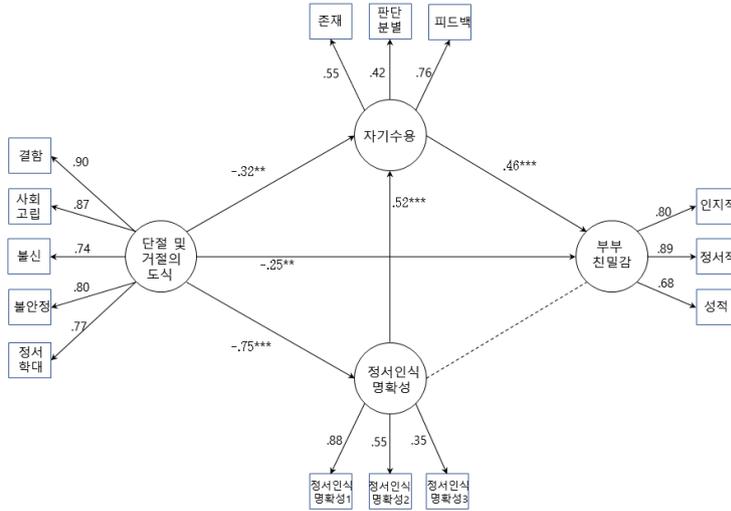
3) 연구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절 및 거절의 도식에서 부부친밀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5$). 또한, 단절 및 거절의 도식에서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로 역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32$), 자기수용이 부부친밀감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beta=.46, p<.01$). 이는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부부친밀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단절 및 거절의 도식으로 인해 자기수용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절 및 거절의 도식에서 정서인식명확성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75$), 정서인식명확성에서 부부친밀감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2$). 이는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아지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쳐 부부친밀감을 설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서인식명확성이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beta=.52, p<.01$), 이는 정서인식명확성은 자기수용을 거쳐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 [그림 6]과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량

<표 8>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t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정서인식명확성	-.13	-.75	.02	-6.67***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자기수용	-.17	-.32	.05	-3.29**
정서인식명확성	→ 자기수용	1.63	.52	.38	4.25***
정서인식명확성	→ 부부친밀감	-.38	-.12	.37	-1.03
자기수용	→ 부부친밀감	.49	.46	.13	3.84***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부부친밀감	-.14	-.25	.05	-2.93**

* $P < .05$, ** $P < .01$,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확인한 단절 및 거절의 도식에서 자기수용을 거쳐 부부친밀감으로 가는 자기수용의 단순매개효과와 단절 및 거절의 도식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수용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즉,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자기수용을 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신뢰구간이 $-0.1158 \sim -0.0350$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 사이에 자기수용이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하여 미치는 영향의 경우, 신뢰구간 $-0.0879 \sim 0.0031$ 에 0을 포함하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 및 정서인식명확성이 이중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0.1641 \sim -0.0633$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단순매개효과와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수용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표 9>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Boot	SE	BootLLCI	BootULCI
Total				
Ind1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자기수용 → 부부친밀감	-0.0737	.0207	-0.1158	-0.0350
Ind2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정서인식 → 부부친밀감	-0.0386	.0233	-0.0879	.0031
Ind3 :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자기수용 → 정서인식 → 부부친밀감	-0.1123	.0255	-0.1641	-0.0633

〈표 10〉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매개효과	총효과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정서인식명확성	-.75 ^{***}		-.75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자기수용	-.32 ^{**}	-.387(-.676~-).198)	-.71
정서인식명확성 → 자기수용	.52 ^{***}		.52
정서인식명확성 → 부부친밀감	-.12	.239(.09~.61)	.123
자기수용 → 부부친밀감	.46 ^{***}		.46
단절 및 거절의 도식 → 부부친밀감	-.25 ^{**}	-.239(.417~-).067)	-.489

V.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남녀의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의 간의 관계와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및 수도권의 중년 기혼 남녀 514명(N=510)을 대상으로 단절 및 거절의 도식 척도, 부부친밀감 척도, 자기수용 척도, 정서인식명확성 척도를 제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주요 변인 간 관계 및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절 및 거절의 도식, 부부친밀감, 자기수용, 정서인식명확성 사이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은 부부친밀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있을 경우 부부 간 애정의 질을 낮추고 아동기 외상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지영, 이인수, 2017; 구성희, 채규만, 2010; 유아진, 서영석, 2017; 최은숙, 김원일,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자기수용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심리도식은 자기도식의 틀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서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권진희, 김해란, 2017) 이해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회피, 억제,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는 자기수용과는 '거절'과 '수용'이라는 매우 상반되는 요인의 특징으로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자기수용과 부정적 영향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은 정서인식명확성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최은숙, 김완일,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수용은 부부친밀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수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나 개인 건강성과 주관적 안녕감이 좋아진다는 선행연구(정명화, 2017; 박경, 2013; 김지윤, 이동귀, 2013)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서인식명확성은 부부친밀감과의 영향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서인식의 세 하위 영역 중 하나인 정서인식명확성이 부부친밀감의 하위영역 중의 하나인 인지적 친밀감과도 인지의 부분에서 정서적 친밀감의 정서 부분과도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자기수용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기수용의 수준은 정서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박경,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정서인식명확성은 수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기수용의 정도를 높인다는 연구(이미애, 김금미, 2017; 성요안나, 2017)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생애 초기에 생성되어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 패턴에 부적응적으로 관여하는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부부 사이의 친밀함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자신의 감정, 정서상태 등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데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은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에 부분매개 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손상이 있고 부적응적인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부부친밀감에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특징의 자기수용을 거쳐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

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검증에서는,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수용을 차례로 이중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의 경로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는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이 타인관점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연구(박상환, 2016)와 유사한 맥락이며, 정서는 인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인지보다 선행할 수 있다는 주장(Benesch & Weiner, 198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관계 상실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수용을 높이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켜 성장에 이르도록 한다는 연구(구진영, 2018)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정서적 학대경험 등으로 다른 도식들에 비해 가장 강력하고 자기 손상이 큰 단절과 거절의 심리도식 영역(Young et al., 2003)에서의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왜곡시키지 않은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부부 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기제인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을 가지고 있을 때, 왜곡 없는 본래 모습의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부부친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이러한 자기수용은 자신에 대한 선명한 정서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상담·심리치료의 현장에서는 내담자들의 부적응적 기제와 발생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도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수용에 초점을 두도록 도와 내적 변화의 틀을 제공하여 심리적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부 간 상호작용의 과정 및 결과 안에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전체로서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인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등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등이 현실적이고 안정되게 지속 된다면, 초고령 사회에서 긴 노년을 보내게 될 중년기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성에 기여하며, 중년 부부관계의 정서적 몰이해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가정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예방적 차원의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패널 등록되어 있는 중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표집대상의 제한 즉,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면대면 조사에 비해 응답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과 중년기 및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 표본적 한계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표집방식과 다양한 연령과 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상을 확보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결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부부친밀감에 있어 지속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쌍 표집이 아닌 각각의 중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양방향적 관계 특성보다 개인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정확한 부부친밀감의 측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관계적 특징을 고려하여 한 가정 내 부부에 대한 표집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남녀의 성차에 따른 변인 간 관계의 차이 혹은 경로를 확인하여 성별로부터 기인하는 차이에 따른 치료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셋째, 초기부적응도식의 하위 영역인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메타-기분 척도의 세 요인 중 하나인 정서인식명확성을 단일요인 척도로 사용하여 조사된 결과를 적용하였으므로 전체 척도의 내용에 포함된 변인 간 영향보다 감소되어 나타났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변인들 간 매개효과와 경로가 밝혀졌으나 단절 및 거절의 도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보다 크게 긍정적으로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손상된 영역에 보다 효과적인 상담개입 지점 또는 치료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지영, 이인수(2017). 단절 및 거절의 도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배우자
- 지지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효과, *한국상담학회지*, 15(2), 351-373
- 구성희, 채규만 (2013). 초기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지*, 13(2), 255-268.
- 구진영 (2018). 관계상실 경험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향신문 (2017. 2. 22). 2030년 출생 한국 여성 '세계 최장수 그룹'
- 권진희, 김해란(2017).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15(1), 13-24.
- 김명희, 최연실(201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23.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중재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4), 1,243-1,267.
- 김영자 (2016).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1(2), 395-409.
- 김영혜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수용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5, 37-58.
- 김지윤,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학회지*, 14(1), 63-82.
- 박 경 (2013). 중년여성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과 화병과의 관계에서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4, 103-116.
- 박상환, 김장이, 방병노, (2016).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표현이 타인관점 수용과의 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 경기도의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16(7), 410-422
- 성요안나 (2017). 정서인식훈련을 통한 정서인식명확성 강화가 정서 수용 및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희 외 8인 공저(2013). 발달심리학 2판. 학지사. 서울.
- 안윤숙 (2009).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독과 신체화 증상, 감정표현불능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7, 63-91.
- 안하얀, 서영석 (2010,b).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문제. *한국심리학회지*, 29(4), 847-865
- 유아진 , 서영석 (2017).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정서적 단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18(5), 41-60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 235-249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애, 김금미 (2017).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이 성격성숙에 미치는 영향: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18(2), 41-59.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 이수정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희숙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 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71-82.
- 정명화 (2017). 정서표현양가성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19(1), 1-30.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3(1), 17-192.
- 조성호 (2002). 초기부적응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14(4), 75-78.
- 최은숙, 김완일(2014). 초기부적응도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료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15(1), 109-123.
- 홍세희. (2004).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

학회 3월 workshop 자료집.

- 통계청 (2018). <http://Kostat.go.kr/> 2017년 생명표(전국 및 시도)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eck, A. T. (1967).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
- Benesh, M., & Weiner, B. (1982). On emotion and motivation: From the notebooks of Fritz Heider. *American Psychologist*, 37, 887-895.
- Cattell, R. B., & Burdsal Jr, C. A. (1975). The radial parcel double factoring design: A solution to the item-vs-parcel controvers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0(2), 165-179.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77-189.
- Ellis, A. (1977). Psychotherapy and the value of a human being. *Handbook of rational-emotive therapy*, 1, 99-112.
- Epstein & G. Feist, (1988). "Relation between self-and other-acceptance and its moderation by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09-315.
- Freeman, N. (1998).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Glick, I.D., Berman, E.M., Clarkin, J. F., & Rait, D.S. (2000). *Marital and family therapy* (4th Ed.).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Washington, DC.
- Gohm, C. L., & Clore, G. L.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679-697.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renberg, L. S. (2004). *Emotion-focused Therap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 3-16.

Maccines, D. L. (2006). Sel-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 ir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5), 483-489.

Mayer, J. D., & Stevens, A. A. (1994).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Meta-) Experience of M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351-373.

Rogers, C. R.(1961). *On Becoming a Person*. 주은선 역. [진정한 사람 되기] (2009). 서울: 학지사.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ney, C., & Palfai,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PA, 125-154.

Sternberg. R. 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Stiles, O. E.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imacy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West, S. G., Finch, J.F.,& Curran,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Young, J. E., Klosko J. S., & Weishar, M. E.(2005). [심리도식치료] *Schema Therapy: A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전:2003).

(2020. 04. 16. 접수, 2020. 06. 01. 심사, 2020. 06. 25. 채택)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acceptance and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of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of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and their marital intimacy

Choi, In-Seon (Sangmyung University)

Bae hee-boo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affect marital relations and middle-aged couples' marital intimacy.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of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their marital intimacy, self acceptance, and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and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acceptance and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of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and marital intimacy.

For this purpose, based on an online survey which is conducted on 510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aged in Seoul, Gyeonggi, and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ale, marital intimacy scale, self acceptance scale, and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were used, analyzed with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

The first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intimacy, self acceptance, and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that self accept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marital intimacy, and that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s. The second results show that self acceptance reveal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and marital intimacy, that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does not reveal any mediating effe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in the path of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 through self acceptance leading to marital intimacy. It means that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in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is the cause to lower the level of marital intimacy and has a negative effect on self acceptance and clear awareness of one's emoti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accepting oneself had a positive effect on marital intimacy, and clearly recognizing self-affection did not directly affect marital intimacy, but was involved in marital intimacy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self acceptanc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mentioned.

Key words: the schema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marital intimacy, self acceptance, the clarity of emotional awareness